

신안군 '1섬 1뮤지엄' 참가 영국 조각가 곰리

'영국의 국민 조각가' '인체를 통한 내면적 성찰의 대가'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조각 거장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74)가 지금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해변에 거대 작품 설치를 준비 중이다. 신안군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초청해 여러 주요 섬에 '1섬 1뮤지엄'의 형식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예술 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 2022년 비금도를 방문한 곰리는 올해 초 작품에 대한 구상을 끝냈다.

밀물과 썰물이 넘나드는 개펄은 작가가 작품을 설치하기 까리는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며 그가 사랑하는 환경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어나더 플레이스(또다른 장소)'(1997)는 100개의 실물 크기 사람 조각이 끝없는 수평선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해변에 드문드문 서있는 작품으로서 2005년 영국 리버풀 근처 크로스비 해변에 영구 설치되어 그곳의 명물이 되었다. 이 조각들은 밀물 때가 되면 바다에 잠겨서 곰리가 늘 강조하는 '자연 원소의 힘'과 '인간의 일시성'을 나타낸다. 신안 비금도에 설치될 작품 역시 조수간만에 따라 물에 잠겼다가 드러났다 할 예정이다. 비금도 작품의 차이는, 가까이에서는 기하학적인 건축 공간으로 보이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멀리서 보아야 누워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작가는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어나더 플레이스'의 사람 형상 조각들이 19세기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유명한 그림에서 광활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무한과 영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명상하는 '바닷가의 수도사'를 100명으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한편 이 작품에서 바다를 건너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주민들을 떠올리는 평론가들도 있다. 조각이 친근함을 느끼며 함께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많고, 또 이 조각에 개펄 생물들이 보금자리를 틈 모습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처럼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고 깊은 층위의 해석과 감상이 가능하기에 이 작품을 비롯한 곰리의 조각작품들은 평론가뿐 아니라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나더 플레이스'는 수상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과 철새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2년 후 철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구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했고 결국 지방의회는 설치 공간을 약간 축소하는 조건으로 영구 설치를 허가했다. 이 에피소드는 곰리가 현대미술의 현학성에 빠지지 않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는 예기이며 그만큼 신안 비금도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몸의 느낌 전달하려 자신을 본떠 조각
1950년 런던에서 태어난 곰리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다. 이것은 그가 영적이고 실존적인 주제를 다루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고고학·인류학·미술사를 공부한 후 인도와 스리랑카로 여행을 떠나 몇 년간 불교를 공부했다. 이것이 그의 삶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몸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안토니 곰리



2022년 전남 신안군 비금도를 방문한 영국 조각 거장 안토니 곰리가 섬의 해변에 설치할 작품을 구상 중이다. [사진 곰리 스튜디오]

바닷물에 잠기고 드러나고... 비금도 개펄에 거인 눕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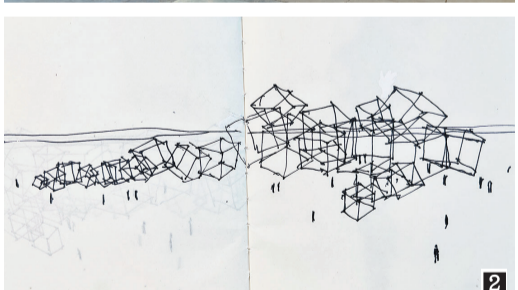


바다를 바라보는 100개의 인체조각으로 구성된 '어나더 플레이스' (1997)가 영국 크로스비 해변에 설치된 모습. [사진 스티븐 화이트&컴퍼니]

고 한다. 그는 추상적인 작업으로 전환하기까지 190cm에 가까운 자신의 거구를 직접 본뜨는 작업으로 유명했다. '또다른 장소'의 100개의 인체 조각도 모두 그의 몸을 본뜬 것이다. 자신의 발거벗은 몸에 석고로 바르고 굳혀 틀을 만든 뒤 금속 재료를 부어 완성하는 것인데 극도의 인내와 체력이 필요하다.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은 내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몸의 느낌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작가는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필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비엔날레 기간 중 곰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작가와의 일문일답.
-신안 비금도 해변에 설치되는 것이 누워있는 인체의 형태를 띤 거대한 작품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관람객이) 해변의 작품에 도착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한 작품입니다. 숲과 모래언덕을 거쳐 20분 정도 걸으면 작품에 닿도록 (산책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작품은 만조선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땅과의 경계선)에서 70~80m 정도 바다 쪽에 있을 겁니다. 썰물일 때는 작품 내부를 걸어들 수 있습니다. 작품은 드로잉에서처럼 매우 추상적인

가톨릭 가정서 자랐지만 불교 심취
"몸은 모든 경험의 근원" 인체 전념
영국의 100개 인체 조각이 대표작
신안에 38개 공간 건축적 조각 구상
썰물 땀 걷고 밀물 땀 헤엄칠 수도
뒷산에서 내려다보면 몸의 형상



1 안토니 곰리의 거대 조각 '베슬' (2012)이 이탈리아의 갤러리아 콘티누아에 설치된 모습. 2 비금도에 설치될 '엘리멘탈'을 위한 안토니 곰리의 콘셉트 드로잉(2021). [사진 OKNO 스튜디오·곰리 스튜디오]
형태여서 이때는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숲 같기도 하고 기능 없는 건축물, 수직과 수평이라는 일반적인 기하학에서 벗어난 건축물 같

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38개 공간 프레임으로 구성되는데, 벽이 없는 해체된 건축물을 돌아다니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다 해변을 떠나 (그 뒤에 있는) 낮은 산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산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 비로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에 있을 때는 건축물, 밖에서 멀리 볼 때는 인간 몸으로 느껴지는 거군요.
"이 작품은 신체를 형상화해 나타내는 (represent) 게 아니라 신체를 관람객에게 떠올리게 (evoke)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저에게 매우 중요 합니다. 산에서 내려다볼 때 이 추상적인 구조물을 주변의 다른 관람객과 함께 보며 비로소 그 크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사람의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오브제라기보다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가지가 깃들 수 있는 장소 말이죠. 첫째로 바다가 깃들 수 있죠. 만조 때는 바닷물이 작품 높이의 150~170cm까지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너무 차지 않으면 작품 안에서 해염을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깃들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이겠죠."

-작품 제목이 엘리멘탈(Elemental: '원소에 관한' 기본적인 '자연력' 등의 뜻이 있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일시적인 집합체이며 그 안에서 거주하고 의식을 갖습니다. 이런 촉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 땅으로 돌아가죠. 현상계,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의 지속적인 교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우리가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픈 일 아니고 그저 현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더 또한 축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영구적인 것은 변화입니다. 불교 사상이죠. 저는 이 작품이 매우 확장된 방식으로 입멸 (parinirvana)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수직으로 똑바로 서있는 상태였던 반면에 열반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수평으로 몸을 옆으로 돌리고 누운 자세였습니다."

신안 사람들의 삶, 지구와 밀착돼 감동
-비파사나(Vipassana '통찰'을 뜻하는 범어) 명상 수행을 여전히 하시는지, 스스로의 몸을 캐스팅하는 동안 그 명상 수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하고 있어요. 불교와 불교 명상을 발견한 것이 제 삶과 예술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몸을 직접 캐스팅하는 것은 지금은 안 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몸의 기억을 디지털 방식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형태는 더 이상 신체 표면의 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체 조각의 경우 조각과 그를 둘러싼 공간이 조각의 표면으로 분명히 경계 지어지는 반면에, 블록이나 수직·수평의 뼈대로 이루어진 곰리의 추상적 인체 조각은 조각 내부와 바깥 공간의 경계가 열려있고 서로 넘나들며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사장 비계 같으면서 인체를 연상시키는 '스캐폴드(비계)' 연작이다.) 이런 조각작품들의 경우 건축의 언어를 이용했고 미니멀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건축의 수직 수평 직교적 문법을 사용해 신체를 '장소'로 정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우리의 두번째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 비금도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나요.
"전라남도 지방과 신안 사람들의 삶이 지구와 밀착되어 있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바다에서 소금을 만들고, 해초를 양식하고 그걸 말리고, 또 육지에서 고추를 재배하죠. 자연의 기본 원소와 밀착된 삶에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작품은 어떤 면에서 그러한 삶에 대한 대화나 축하로 볼 수 있습니다."

/문소영 기자 moon.soyoung@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